#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 "자기뿌리 안믿고 어디를 믿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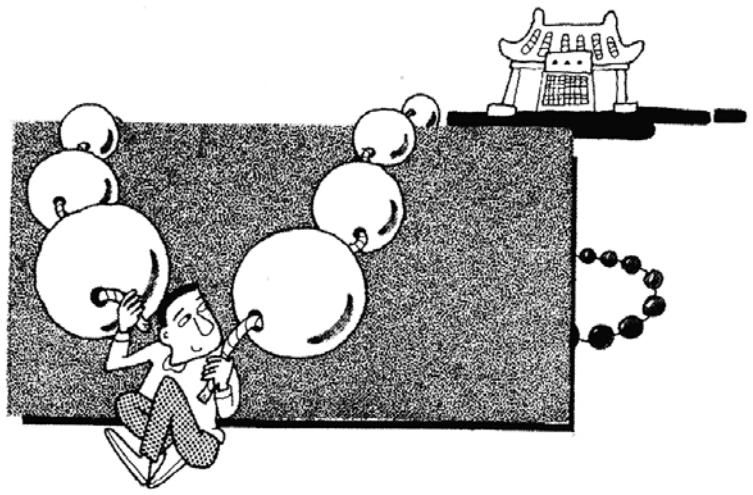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종점이 시발점 되는 도리 알면 피안행
## 마음의 용광로에 다 놓을때 습 제거돼요

이렇게 꽃피고 새우는 봄날에 같이 한 자리를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봄날이 된다면 각계각층 어떠한 거든 막론해놓고 다 녹일 수가 있고 자유스러울텐데 하는 생각에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또 서로 토론하면서 서로서로의 모자라는 것을 메꾸어 나가는 자리이니 도반으로서 아쉬움없이 잘해 나가 봅시다.

### 관할때 생각 어디에 두는지요

**문** 질문드릴 것은 먼저 '주인공!' 하면서 정진을 하는데, 입으로는 주인공 하면서 소리를 내는데 생각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요? 예를 들면 아무것도 생각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선원에 계시는 부처님을 생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다하여 내 가슴 속을 생각해야 하는지, 과연 어디를 생각하면서 주인공을 찾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답** 본래 인생이 태어났으면 자기 뿌리와 싹이 동시에 같이 태어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알고 내가 미리 이 염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쩧습니까? 이 염주가 되기에는 줄에다 이 알을 꿰어야 염주가 돼죠? 그렇다면 사람도 이렇게 염주처럼 정신계와 물질계를 겸해서 가지고 나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어디를 찾아야 하고 어디를 믿어야 하고 이런게 없이, 본래 이렇게 꿰어져 있습니다. 육신과 정신계가. 즉 말하자면은 염주알은 어디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염주를 꿴 줄이죠? 이 줄은 정신계라고 비유할 수 있고, 이 알은 물질계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주는 불가부득이 누가 믿어라, 안믿어라 할게 없이 이 줄을 믿어야 하겠죠. 그러니 믿는다는 언어도 붙지 않는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그대로니까, 그대로 꿰어져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대로 염주가 되듯이 인간도 그대로 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자리에 놓여 있으니 인간 된 자리의 생활을 해야죠.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대로 믿어라, 그대로 믿어라, 같이 겸해서 있으니 그대로 믿어라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면 이 줄이다 알이다 이런 이름을 찾을 필요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비유를 하자면, 싹은 뿌리에 붙어있고 뿌리는 싹을 살리기 위해서 생겼죠. 그리고 그렇게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서 그 뿌리로 인해서 싹이 살고 있는데 자기 뿌리를 안믿고 어디를 믿는다는 겁니까? 그대로 믿어야죠. 종교를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걸 떠나서, 부처님을 숭상한다 안한다 이것도 떠나서, 그대로 자기의 싹을 내게 한 장본인인 자기 뿌리를 믿으라는 거죠. 모든 것은 그 뿌리가 흡수해서 올려보내니깐요. 싹은 또 모든 걸 흡수해서 아래로 내려보내고요. 이런 건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굳이 이걸 믿으시오! 이러지 않아도 그대로 결집이 돼 있다니까요. 그대로 이 염주와 같이 말이예요. 그러니 이 염주는 이 줄을 믿지 않으면 안된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 은하계나 태양계도 그렇지만 지구도 이 염주알처럼 줄에 매달려서 돌아간다구요. 이 마음의 줄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돌아간다 이 겁니다. 인간도 이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을 믿는다면 이 줄은 매듭도 없고 시발점 종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알은 시발점이 있고 종점이 있죠. 그러니 모든 것은 이 안에서 훌떡 벗어나야, 정신계 물질계를 벗어나야 자유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물질계에서는 이 테두리 안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신계로 하여금 무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광대무변한 묘법입니다.

그러니 이걸 내가 믿으란다고 믿고 믿지 말란다고 믿지않고 또 누가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무조건 자기 뿌리는 자기 싹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누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부처님의 뜻과 인간의 생활자체가 같이 돌아가면서 바로 이것이 진리와 합류화되어야 진리지, 만약에 거기에서 벗어난다면 이것은 부처님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누가 하라 하고 하지말라 하고를 떠나서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어야 한다 이 소립니다. 자기 염주알이 자기 줄을 믿듯이… 그래서 이 염주알은 말입니다. 이 염주알을 이 줄에다 튼튼하게 꿰어놨기 때문에 염주는 걱정도 안해요. 줄 끊어질까봐 걱정도 안해요.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대로 줄을 믿고, 믿는다 안 믿는다도 없이 그냥 하면 그대로 움죽거려져요. 그러니까 그대롭니다. 그대로… 여러분들도 지금 뿌리와 싹이 그대로 한 몸입니다. 그러니 못믿고 믿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믿으시고 거기에 맡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해서 맡겨놨다가도 또 못믿어서 뺏아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한번 맡겼으면 맡긴 그 자체가 아주 뚜렷하게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서 좀 시일이 가서 풀릴 수도 있고 단박에 풀릴 수도 있는 그런 천차만별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조급해서 아이구, 요렇게 맡겨도 안돼! 안돼! 안된다고만 합니다. 그렇게 못 믿을려면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뿌리로 인해서 싹이 났는데, 자기 영혼의 뿌리가 자기를 형성시켰는데 그렇게 못 믿어서서야 어찌 삶을 보람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꼭 배워가지고 믿어야 되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본래 꿰어져 있으니까 믿어라 이겁니다. 이제 꼭 믿고 맡겨 놓아야 할 때가 바로, 아주 가까운 내 윗 눈썹과 아랫 눈썹 같은 거라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하여튼 아주 정당합니다. 이름을 믿을 겁니까? 형상을 믿을 겁니까? 이 세상에 누굴 믿겠습니까? 부부지간에도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해야되고 자식한테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알고, 슬프고 즐겁고 한 것은 자기 뿌리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하자면 마음은 마음내기 이전이다, 이럴때 그 마음은 죄알고 있는 겁니다. 마음내는 건 아무렇게나 막 그냥 나오는 대로 마음을 내겠지만 마음 내기 이전의 마음은 아주 정확합니다. 더하고 덜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낼때 마음의 선장이 마음을 잘못 낼 때는 다스려서 거기 놓고 잘 낼 때는 '잘 내게 해서 감사하구나! 나를 가르키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즐겁게 내주니 감사하구나!' 하고 거기다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이지 누가 죄를 주고 안주고가 없습니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지 누구가 해라 말아라, 지어라 말아라 이런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라면, 그래서 부처님 될 수 있는 자격이 99%가 된다, 한 찰나 생각만 잘 한다면 말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무식하고 무식 안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못나고 잘나고 간에 이 줄은 반드시 꿰어져 있는 염주알과 같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염주알을 꿴 그 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다스리고 행하고 거기 놓고, 잘못된 것도 거기서 나오는 줄 아시고 바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줄 아시고 되 그 자리에다 놓으신다면 앞서의 것이 없어지면서 새 입력이 들어가면서 새 삶에 대한 보람있는 삶이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못 믿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나 사나 죽을 병이 들었으나 죽을 병이 안들었으나 진짜로 믿는다면 정말 죽는다 하더라도 옷을 벗고 바로 승천이 될 것이고, 즉 쉽게 말해서 이 어항 속에서 벗어날 거고 또 산다 하더라도 그냥 살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래도 건지고 저래도 건지는 건데, 왜 겁을 내느냐 이겁니다. 뭐가 겁이 납니까? 누구나가 한번 옷 벗기는 마찬가진데. 부처님께서도 그 깨달으신 과정과 열반하신 과정이 어땠습니까? 염주알을 시발점에서 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종점까지. 종점까지 오니까 다시 시발점이 되더라. 그죠? 다시 시발점이 돼죠. 그러니까 종점이 됐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종점이 됐다하면 시발점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었다 하면은 한 찰나에 그대로 마음공부 한 사람들은 그냥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공부 못하고 바깥으로만 끄달린 사람들은 그 차안(此岸)에서 즉 차단 속에서 감옥 아닌 감옥 속에 갇혀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세생생에, 그 의식, 관습에 의해서, 인과에 의해서 그냥 매달려서요.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개구리로 살던 습이 누적이 돼 가지고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개구리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생각을 하되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용광로에 다 놓으십시오. 이 줄은 용광로와 같고 자가발전소와 같고 불바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겨 놓기만 하면 모든 것은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놓고 맡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것이 자기 뿌리라는 것을 아셨으면 무조건 믿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한번 맡겼으면
맡긴 그자리가 아주 뚜렷해요
그래서 의심도 걱정도 없습니다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210)

# 나 하나 죽는다면 계율은 절로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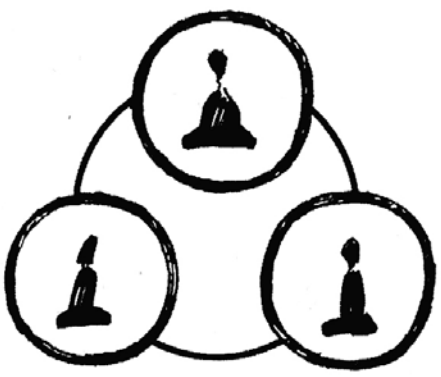
더러우면 닦고 흐트러져 있으면 가다듬고 망가지면 고치고 하는게 계행이니 생활 속에 하나부터 열까지 계율 아닌 것이 없다.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행하며 사는 것이 계행이다.

부처님의 계율은 '이렇게 저렇게 하지말라' 가 본 뜻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많이 하다 보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용도와 분수에 따라서 한다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오계만 해도 '하지 말라' 로 일관되어 있지만 요즘에 와서는 긍정적으로 '살생하지 말라' 를 '평등한 자비심으로 생명을 사랑하라' 로, '도둑질 하지 말라' 를 '보시를 행하여 복덕을 지어라' 로, '사음하지 말라' 를 '몸과 마음으로 청정행을 닦으라' 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를 '진실만 말하고 신뢰를 지켜라' 로 '술 마시지 말라' 를 '언제나 밝고 바른 지혜를 가져라' 로 해 놓으니까 계율이란 안 함으로써 지키는 게 아니라 부처님 뜻을 받아 행해서 지키는 것이 된다. 근본 마음이 청정하고 바르면 따로이 세울 게 없다.

계율을 세우려면 2백50개가 아니라 수천개도 세울 수 있다. 세상 전체가 계율 아닌 게 어디 있는가. 문제는 겉으로 세워놓은 계율이 아니라 근본 마음이다. 가령 남을 조금이라도 해롭게 하는 행을 한다면 계율을 범한 것이고, 그러한 생각을 한번 일으켰다면 그것 또한 계율에 어긋나는 것이다. 모든 계율이 한군데서 나고 드는 걸 알면 계율이 몇 개이든 전체 계율을 다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모른다면 전 계율에 다 어긋나는 것이다. 2백50계다, 3백48계다 할 것이 없이 전체가 계율이니 한 마음으로 지키고 행해야 한다.

계율은 주어지면 짐이다. 그러나 일체 경계를 다 근본 주처에 놓아 가면 구태여 계율의 자로 재지 않아도 저절로 계율이 지켜진다. 그때의 계율은 자유의 날개이다. 계율에 자기를 맞추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이미 갖춰져 있는 계율이 우러나 오도록 하라.

모든 것을 주인공 자리에 맡겨 놓는다면 구태여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사성제니 십이인연이니 따지지 않더라도 계율을 다 지킬 수 있고 더불어 다 같이 유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일일이 따져서 이렇게 보아야 한다, 이렇게 들어야 한다, 이렇게 정진해야 한다는 식으로 모든 소리를 다 해야 하고 그렇게 행해야 한다면 복잡해서 언제 자기를 알 수 있게 되겠는가. 그러기에 이론 따지고, 경전 따지고, 학식 따지고, 옳고 그름 따지고 할 사이 없이 '곧바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다.



중생인 나를 못 미더워 한 나머지 나를 부정하며 계율로 얽어 매기보다는, 부처인 나의 근본을 믿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라. 그것이야말로 계율을 초월하여 계율을 지키는 긍정의 방법이다. 본래 부처인 우리들은 자신의 빛으로 사는 것이다.

불법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공부이다. 자유인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계정혜가 세워졌다. 그러므로 자유인이 되기 위한 계정혜가 새로운 굴레가 되어 부자유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주객이 뒤바뀐 일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계율이 이러하고 청규가 이러하니 이렇게 해야만 한다, 저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계율을 들고 있는 사람보다는 계율을 다 놓은 사람이 진실로 계율을 지키게 된다. 그렇다고 계율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인연 줄이 얽히고 설킨 데서 일어서려면 먼저 관념의 굴레를 벗어 던지는 작업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상대와 때와 장소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데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려야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중생들은 모르니까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나온다. 그때에 다시 굴려서 되놓고 또 놓고 가면 바로 굴레에서 벗어나려 애쓰지 않아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니, 따라서 남이 주는 계율에 매이기 전에 먼저 안으로 놓는 작업부터 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직접 들어가는 순리이다.

마음으로부터 계율이 우러나오려면 모든 경계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누구로부터 까닭 없이 한대 맞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 안으로 굴려서 녹여야 한다. 그때야 자연스런 계율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고로 마음법에서는 인욕이 이미 인욕이 아니다. 그것은 참는 게 아니라 이미 '참을 것도 없음' 이다. 그렇게 크나큰 마음, 대장부의 마음으로써 세상을 보아야 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곧 불법의 생활화인 것이다.

원통을 벗어난 사람인 경우에는 자재로이 통 안팎을 들고 날 수가 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걸림이 없다. 그러나 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에 한해서는 통 안의 이치로 보고 듣고 행동하고 느끼고 하니까 걸림이 많다. 따라서 제가 걸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 귀에 거슬려 그로 하여금 마음에 걸림이 있게 해서는 안된다. 제아무리 저 언덕을 넘나든다 해도 일체는 개별적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돌아가므로 모르는 사람에게 죄업을 지어 주어서는 안된다.

협찬: 주인공